

기내 구명조끼 슬쩍하면 망신 분실방지 '전자태그' 부착



앞으로 비행기 내 구명조끼를 '슬쩍' 하면 망신을 당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8일 "기내 구명조끼는 담요나 티스푼과 달리 승객 안전확보 차원에서 분실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명조끼는 매년 500여 개가 분실되고 이중 대부분이 국내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항공은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국내선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태그는 무단반출시 '삐~이' 하는 경고음이 나오는 것으로 항공업계는 화물처리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것을 이번엔 구명조끼에 확대 적용하게 됐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게 된 것은 구명조끼가 고가품은 아니지만 유사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비이기 때문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국시멘트 주식 취득 항소심서도 무죄

회사 공금을 빼돌려 한국시멘트 주식 일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N산업 대표 겸 한국시멘트 부회장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해광)는 27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불법주식 취득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한국시멘트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서 이 주식이 범죄수익물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나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요즘 대학들은 '취업 사관학교'

학교측, 동아리 육성·지원금도 늘려 학생들도 졸업 늦춰 '평생직장' 잡기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이 취업을 제고 위해 취업 관련 동아리를 적극 지원·육성하고 나서는 등 대학가의 취업준비 풍토가 '학생 스스로'에서 '학교와 함께'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 역시 자신이 정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나 직종의 일을 잡기 위해 졸업을 늦추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취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결코 취업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취업 동아리 육성 =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취업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9일까지 경쟁력 있는 동아리 10곳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대도 평균 학점 3.5 이상, 토익점수 700점 이상 학생 70여명을 선발, 학생들이 면접·서류작성·토론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일반기업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 그룹 스터디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학측에서 학생회관 건물에 마련해 준 사무실에서 매주 1~2차례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대다수 취업준생이 학점이나 어학 점수 등은 충분히 갖췄으나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비해 면접시 표현력이 떨어지는 만큼 표현력 향상에 지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입상이 지름길 = 각종 공모전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이 늘

면서 공모전이 취업의 지름길로 각광받고 있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4년 김모(27)군의 경우 최근 'BBQ치킨'에서 실시한 마케팅전략 공모에 응시, 1등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과 함께 입사 특권이 라는 선물을 받았다. 김군의 입사 소식

은 순식간에 취업준비생들에게 퍼졌고,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 응모를 준비하거나 나서고 있다. 조선대는 내년부터 취업준비반과 함께 공모전 준비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바다이야기' 모방 오락기 제작 6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기를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사행성 성인 오락기인 '바다이야기 오토 3' 제작·유통 업체인 K전자 대표 박모(4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등지에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오토3' 320대를 제작,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불법 개·변

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13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이 먼저 '바다이야기'를 개발했으나 영등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밀리는 바람에 심의 통과가 늦어져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당초 '바다이야기'는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바다'라는 프로그램을 들여와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단체기합... '국제 망신'



광주 모 고교 2학년 학생 9명이 28일 오후 3시께 '2006 광주비엔날레'가 한창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장에서 '엎드러뻗자' 열차려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이 비엔날레 관람에 나섰는데, 이 학생들은 약속시간에 늦어 담임 교사가 열차려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외국인 등 관람객들은 "이런 곳에서 치마 입을 여학생에게까지 저런 벌을 준다면, 교내에서는 오죽하겠느냐"며 눈살을 찌푸렸다.

/사진=네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6939) 김장두



발종신도시의 중장투권을 둘러싼 3,626 최대단기
 청약호환 - 입주권은 20만여 원까지
 수환신도시 피오레
 청약번호 062-367-9000

'네이버' 블로그에 포르노 영상
 ○국내 유명 포털사 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한 블로그에 포르노 영상이 10여일 게재됐다 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10여일 전 한 블로그에 일본 포르노로 추정되는 약 6분여 길이의 음란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실을 파악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에게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린 것.
 ○네이버 관계자는 "200여명의 직원이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700만개 이상의 블로그를 모두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는 어렵다"며 "강력히 제재해 이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
 /연합뉴스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한문산복분자포
 산매
 한문산복분자포